

머리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014년판 ‘심의결정집’(통산 제53호)을 내놓습니다.

이 결정집에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에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과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를 서약한 비회원사들이 발행한 일간 신문의 기사와 광고들 중에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기사 부문에서 모두 787건(결정 이유 1,494건)의 심의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별로 보면 ‘보도자료의 검증’(421건),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390건),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123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116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88건), ‘표제의 원칙’(72건), ‘선정보도의 금지’(40건), ‘언론의 책임’(37건), ‘보도와 평론’(30건), ‘자살보도의 신중’(29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16건), ‘사회적 책임’(15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14건), ‘보도준칙 전문’(13건), ‘답변의 기회’(11건),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11건),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10건) 등입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제 관련 15개 조항별로 보면 보도 윤리를 위한 최소 수칙인 ‘보도준칙’(제3조) 부문 제재가 6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인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제1조) 부문 제재 428건, 저작권 관련 조항인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제8조) 부문 제재 222건 등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점은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가지 조항 위반 사례들은 2012년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69건,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154건이던 것이 2013년 각 245건, 318건에 이어 올해에는 각 390건, 421건으로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반 사례들은 절대 다수가 기업 상품 등을 홍보하는 기사이거나 지면에 기업 등이 제공하는 검증이 안된 내용의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고 연계되는 지면에 광고를 수수해 신는 식의 지면 제작 사례들입니다.

결국 위 위반 사례들을 보면 불경기와 신문 광고 시장의 위축에 따른 경영난 속에서 신문들이 기업 등으로부터의 금전적 유혹에 굴복하거나 스스로 금전적 대가를 위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없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독자와 신문사의 관계의 근간인 신뢰성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신문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놓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부문에서의 위반 사례가 올해는 감소로 전환해 전년도 358건에서 올해 222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질적으로 가장 나쁜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이 123건이나 되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고 관련 결정 건수는 990건으로 2013년 1,389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광고의 질적 개선이 아니라 신문 광고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결정 건수는 줄었는데 규제 이유는 오히려 2013년 3,313건보다 400여건이 더 많은 3,776건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광고에서 다양한 위반 행위가 더 많이 지적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제재 이유별로는 신뢰훼손 광고가 9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규위반 광고 894건, 허위 광고 786건, 과대 광고 672건, 책임 소재 불명 광고 396건 등이었습니다.

신문 광고의 질적 저하라는 상황이 가까운 시일내에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신문과 독자 모두를 위해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각자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문 윤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신문윤리위원들과 전국의 신문들을 꼼꼼히 검토해 심의해오신 심의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분들의 수고가 보람있는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지 형